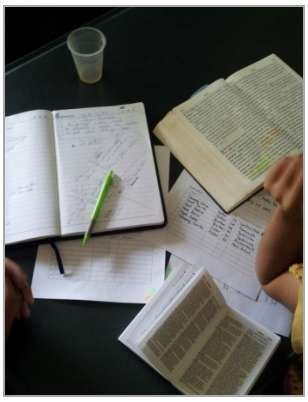
귀한 동역자님께,

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캄보디아의 정지웅/은영 선교사입니다. 그동안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감사함으로 동역자님께 나눠드립니다.

셀 이야기와 부활절 노방전도 Cell & Easter

2015 년에 들며, 교회의 표어를 확장 Stretch Out 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기존의 소그룹을 셀(Cell)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명칭을 변경한 것이아닌, '작지만 하나의 교회, 나아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를 함께 품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 부부로부터 공급받아온 돌봄과 양육은 점차 셀리더로 그 역할이 옮겨지고, 동시에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가 배우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각오를 심었습니다. 셀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 작년 말, 기존의 3 개의 소그룹가운데 하나의 그룹찌보완 Chivon 이 스스로 전도를 통해 성장하여 두개의 그룹으로 증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의 헌신된 리더우덤 Oudom 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한 명의 리더를 얻은 것이 이후에 거둘 더 큰 감사입니다.)



작은 교회 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먼저 4 명의 리더에게 종이를 주고, 자신의 장단점신앙적, 성품적을 적어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함으로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함께 셀을 협력해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해 보라 했습니다. 잠시 후 말없이 각자 한 명의 이름을 적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한가지 기대와 다짐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같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고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2 명의 이름을 더 쓰되, 매주 안정적으로 모임에 나올 수 있으면서, 찬양이나 친교 등의 교회의 한 기능을 맡길 수 있는 이를 생각하여 쓰라했습니다. 다시 말없이 고민하며 이름을 써 가는동안, 제 마음에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고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잠시후, 모두가 펜을 내려놓은 후, 이름을 확인하니, 8 명의 이름도 하나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곧 리더들에게 조금전의 제 마음 test 을 나누고 감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멤들들은 각 그룹의 4 명과 관계중심으로 배분하여 셀 조직을 마쳤습니다.

이후, 1 월이 되어 모두에게 셀사역을 시작함을 공포하고, 이름없는 셀 No-Name Cell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 주간의 첫 미션으로 각각의 셀 이름을 정하고, 주제 말씀과 비전을 함께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예배 후 4 명의 리더들은 멤버들과 둘러앉아 고민하며 조금씩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3 주가 지난 후, 드디어, Agape, Em$^{I\ am}$possible 엠파서블, Fruition, Life 의 4 개의 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의 첫 자를 재조합하여 보니, 나뭇잎 leaf 이란 글이 되어, 그것을 교회의 셀사역 명칭으로 Leaf ministry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때 저희 부부는 마음에 큰 놀라움이 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회와 성도를 형상으로 비유할 때 나무 Tree 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서 죽고 살아난갈 2:20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 심겨진 큰 나무와 같아 또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그 아래 살게 한다는 이미지입니다. 또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로고도 나무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셀 이름이 LEAF 라니요.. 참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이어, 셀티셔츠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고, 디자인을 공모하여 우리가 만든 옷을 입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3 주간의 나뭇잎디자인공모 Leaf Design Competition 로, 총 5 개의 디자인이 올라와 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개투표로, 한 사람에게 10 개의 도장을 주어, 이름없이 올라온 디자인에 각각 3 개까지의 도장을 찍도록 하여, 가장 많은 도장을 받은 것을 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빤냐싸대학 건축과에 다니는 모니레악 Monnyrak 의 디자인이 뽑혔고, 2 주후 모두가 티셔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기쁜 예배를 드린 후, 각 셀에서 준비한 계란과 전도지를 가지고 강가와 왕궁 주변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전도지를 주면 부담부터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줍어 말 한마디 못 건냈었는데, 이제는 잘 해 냅니다. 물론, 안 하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노방전도가 생소한 이들은 뒤에서 따라다니기만도 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 날씨는 정말 덥습니다. 도중에 큰 나무아래서 잠시 쉬기고 하고, 또 왕궁 근처에서 사진도 찍으며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티어리의 꿈, 예수님 Theary's Dream

티어리 Theary 는 프놈펜에서 한시간 근교의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공부를 위해 프놈펜으로 와, 빌드브라이트 대학에서 영문과를 다니면서, 작년부터 예술대학에서도 음악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불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집에 화가 있다고 여기고도 있었습니다. 예술대학에서의 만남이 다리가 되어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3 주정도가 지나서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찾아오셨는데, 바로 꿈을 통한 예수님 영접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속에서 티어리가 양손에 유치원생쯤 되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아이는 캄보디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빠른 속도록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켜버릴 만한, 도저희 피할 수 없는 불길에, 그 마음속에 아이의 손을 놓고 어서 달려 도망가야겠다 하였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이 불쌍해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최선을 다해 달리나 아이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가는 절박한 마음을 가졌다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자기 주변에 평안을 잃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아프리카 흑인 등,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불길은 티어리 바로 뒤까지 다다랐고, 그순간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다 깨달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라고 소리치고, 또 두 아이들에게도 그리 시켰다합니다.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는 그 순간 꿈속이었는데도 생생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즉시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불길은 티어리와 모든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잠시후 보니, 자기와 아이들, 또 모든 기도하던 이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불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저희 가슴도 떨리고 감사했는지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꿈이요, 나아가 그의 장래에 있을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을 나누었고, 티어리는 진심으로 영접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간증을 통해 모두에게도 나눴습니다.

언어 교육 Bridge Ministry

주말 영어 교육과정인 ACE 수업은 2 년간의 일반 영어 교육을 일단락 매듭짓고, 지난해 가을부터는 토플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유학의 경험을, 특히 조선교사의 영어교육전공이 학생들에게 강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0 명 안팍의 소수 공부방이지만,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평균대학생들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나 보입니다. 대부분 졸업후나 가까운 장래에 유학을 소망하는 이들이어, 장기적으로 캄보디아의 리더쉽 그룹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 구성은, 직장인 두명 외, 5 개 대학의 대학생들이기에, 이들을 통한 2 차적 캠퍼스리치 (Campus Reach)의 가능성도 있다

생각됩니다. 토플/토익은 아직 캄보디아에선 공부하는 학생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0-1000 은 주일 아침에 있는 한국어 중급반 명칭입니다. '10 주 1000 단어'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글과 영어는 순서 언어 교육의 기능외에도, 교회 사역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턱으로 발길을 들여놓는 역할을 해 줌으로, 2 차적으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글교육을 시작한 후 지난 3 년을 돌아보면 이 사역은 주로 협력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오셔서 언어를 배우시던 선교사님에게는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되었고, 파견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경험과 선교의 동참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장훈 교수님 [2012], 전덕희 선교사님 [2013], 그리고 현재의 신사임 집사님 [2014-] 모두가 저희에게는 영혼구원의 소중한 동역자이셨습니다.

한걸음 나아가, 언어교육을 교회 밖의 플랫폼 [Platform] 으로 삼아, 이후의 교육 사업의 기초로 닦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함께하는 손길을 통해 확인과 이끄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 시작된 셀 사역이 이후 가정교회의 개척의 생명력을 얻게 된다면, 지금의 교회는 허브 [Hub] 가 되고, 작은 여러 예배공동체들을 연결해 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가족 Family

저희 부부는 온유 [Anne] 와 주언이 [John] 를 AJ 라 부릅니다. 짧아 편한 것도 있지만, 두 아이가 평생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거쳐 캄보디아로 왔으니, 한국의 가족을 떠나 산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AJ 라고 부르는 마음이, 사실은 저희들 부모님에게 받은 마음이기에, 늘 그립고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게 됩니다.

온유 주언이는 학교 잘 지내고 건강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캄보디아에서 자라고 있으니, 조금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가 복잡하다 말할 것 같습니다. 별 선택없이 서로에게 베스트프렌드가 되었고, 가끔은 뭐하고 노나 들여다보면, 만화 그리고, 종이 접고, 온유는 손톱에 색칠하고, 주언이는 상자 잘라 칼(?) 만들고... 아직은 순수한 유치함이 저희에게 또다른 쉼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아이들, 모두 녹음을 해 놓고도 싶은 마음도 가끔 듭니다.

정은영 선교사가 작년 가을 중이염과 인후염을 심하게 앓고난 후, 염증은 사라졌으나, 지속적인 사이너스 [얼굴 속의 빈 공간] 통증과 압박감이 약 6 개월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의 여러 의사들을 만났고, 처방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조금 나아지는 듯 하면 다시 통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염증은 없는데, 알러지 반응처럼 염증에 대한 몸의 면역체계 반응이 멈추지 않는 것 같다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저희는 이제 6 월과 7 월에 있을 수련회와 상반기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월 June 과 7 월 July 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제이 시즌 J Season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Jesus 에 푹 빠지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은 은혜가 이 서신을 읽으시는 한 분 한 분께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셀 리더들(찌보완, 삐싸이, 피롬, 우덤)이 섬김을 통해 서로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2. 티어리가 믿음가운데 잘 자라, 이후 가족과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로 축복하시길
3. 정지웅/은영 선교사가 더욱 깨어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들을 잘 섬기며 쓰임받도록
4. 온유, 주언이가 지혜롭고 총명히 자라며, 성령님을 어려서 만나고, 삶을 드리는 은혜를 주시길

2015 년 4 월 20 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올림

* 선교사역이나 선교사자녀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 *Episode* ~

고난주간 중 릴레이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셀리더들은 필수로 해야하고,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했는데,

그중 다이엔 Diane 이 매일 금식에 성금요일 전일금식에 이름을 썼습니다. 처음 금식을 하는 것이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간증시간에 금식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이전보다 더 깊이 느꼈던 은혜에 대해 나누다가, 마지막에 실토를 한 것이, 금요일 저녁에 너무 배 고파서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목이 가장 귀엽고 은혜스러웠던 간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부활절 노방전도 후, 땡볕에서 땀 흘리는 모습들이 안스러워, 시원한 밀크티를 사겠다 했습니다. 다 같이 차집에 들어가 주문하는 그 때, 직장 다니는 이들이 '선생님 가정은 우리가'하면서 돈을 걷어 네 잔을 사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원했던 최고의 차였습니다 ☺

정은영 선교사가 지난 4 년간 쉬지않고 짠톨 Chanthol 이란 캄보디아 자매에게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참으로 특별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한 이입니다. 시골 농사꾼의 9 남매중 다섯째로 태어나, 어느날 밭에서 흙파고 놀다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10 대 어린 나이에 프놈펜으로 혼자 올라와, 청소부터 시작해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과 대학원 MBA 을 나와, 지금은 사무실을 두개 가지고 있는 여행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동생들을 불러 데리고 살며 매일 QT 하고, 학교 등록금을 대며 공부시키고 있는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이 짠톨이 지난달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짠톨의 스토리가 참 멋있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행복하세요~'

- The End -